

## [찬양과 큐티 7]

### “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”

유지연 집사 / 1999 / 페이지 수: 1

“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말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”

히브리서 4장 12절은 “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…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”라고 기록하고 있다. 다시 말하면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에너지만으로 활동한다는 뜻이다.

이와 마찬가지로 평화, 기쁨, 사랑도 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.

주님은 평강의 왕(사 9:6)이 시기에 “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”하시며 “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(요 14:27)”고 말씀하셨다.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이다.

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곳에 있다가 한적한 시골로 내려갔을 때 곧잘 평화롭다고 말한다. 그러나 주의 평화는 그러한 것들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.

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모여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“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”라고 먼저 말씀하셨다.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멋진 집보다도, 돈보다도, 지위나 명성보다도 평강이 필요했던 것이다.

그리고 또 이 평화의 능력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한다(엡 2:14)

‘교파간의 담, 부부간의 담, 인종간의 담,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담, 하나님과의 담, 교회안의 담…’ 그런데 이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, 걱정, 두려움이다.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.

“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.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”(벧전 5:7)

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이다.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늘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라는 이야기이다.

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, 걱정,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가! 그래서 그분의 평강이 필요한 것이다.

주의 평화를 초청하라!

주의 평화가 내 안에서 그 자체의 에너지로 일하시게 하라.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의 미스터리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자. 평강이여 임 하시옵소서 아멘.

<유지연 집사 / 헛서유직 대표>

\* 출처 : QT신문